

공무집행방해 폭력 앞에 경찰들 ‘시름’

광주경찰, 한해 평균 30여명 병원치료
주취자가 70% 달해...재범 비율 20%
되레 인권침해 고소 당하는 어려움도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고 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경찰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는 경찰관 수도 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까지 69명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다. 최근 3년(2016년부터 2018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총 674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69.2% (467명)은 주취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집행방해사범의 20% (135명)는 상습적으로 재범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상해를 입은 경찰관수는 95명으로 한해 평균 30여명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하루에만 3건의 공무집행방해사범이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박모(38)씨는 26일 오전 1시43분께 광산구 신가동 한 술집 앞 거리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떠들다가 112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공격당한 경찰관은 얼굴이 찢어져 치료받고 있다.

약 한 시간 앞서 0시15분께에는 광산구 신장동 한 주점에서 술자리 일행과 시비하던 손모(41)씨가 경찰관을 때려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손씨는 사소한 다툼으로 일행을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박치기와 욕설을 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부경찰서는 주점에서 만난 남성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조모(23)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조씨는 해당 경찰관의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음주 상태에서 폭행·폭력 등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을 엄벌하기 위해 산하 5개 경찰서 형사과를 중심으로 ‘공무집행방해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지만, 좀체 관련 사범은 줄어들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현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모 경찰서 지구대 관계자는 “최근 ‘제2의 윤창호법’이 발효되면서 더 강해진 처벌 때문에선지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과 각축전을 벌이거나 술집에 차량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도 더러 있다”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 해도 되레 인권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후 몰수 조치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입체적인 보강수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세화아이엠씨 대표 등 5명 기소
수백억 횡령·주식 부당거래 혐의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한 세화아이엠씨 현지 경영진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사모펀드 운영자인 노모(55)씨 형제와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 유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씨 등은 세화아이엠씨를 인수한 뒤 회사 주식이 거래 정지될 상황을 미리 알고 지난해 3월 초 보유하고 있던 세화 주식 619만8천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세화아이엠씨 전체 주식의 22%에 달하는 규모로, 거래정지 전 주가는 주당 2천900원 선이었다.

또, 지난해 3월 세화 자금으로 주당 1천100원 선이었던 의료용 진단키트 업체 D사의 주식 400만주를 주당 2천750원에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승지기자



청소년 금연 홍보물 부착

USB메모리스틱을 달은 디자인에 냄새와 담배재도 없는 신형 액상담배인 줄(jul) 출시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흡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관내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 금연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광주서 혼자 사는 여성 노린 범죄 잇따라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미수)로 유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전날 오전 3시45분께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가 혼자 사는 집을 침입하려 한 혐의다. 유씨는 2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

기 위해 주차장 구조물을 타고 올라갔다.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유씨는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로를 추적한 결과 유씨는 같은 원룸에 사는 거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괴로웠다. 피해 여성과 대화를 하고 싶어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석방 후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홀로 귀가하던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홀로 귀가하고 있던 20대 여성의 손을 만지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문철현기자

전자발찌 착용 강간 미수범 석방 논란

여수경찰 “법적 절차 따라”...전남청, 사실관계 확인 중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돼 범행 전 불합한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강간 미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면서도 9시간만에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확인 사실에 나섰다.

27일 여수경찰서와 순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A(41)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해 지난해부터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대상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모텔 등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24일 오후 11시가 넘어도 귀가하지 않자 현장 대응팀을 보내 위치를 추적해 다음날 새벽 1시께 경찰과 함께 모텔에서 붙잡았다. 발견 당시 A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여성에게는 폭행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25일 오전 3시께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

용하려 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자해에 의한 치료 명목으로 검거 9시간만인 25일 오전 10시께 석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 동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석방되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A씨가 추가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할 수 있으니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서 깬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성폭행을 하려 하자 저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경찰은 25일 오후 7시께 A씨를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하고 귀가시킨 후 강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4번이나 위반하는 등 성폭행 미수범인 만큼 매우 위험한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인권 부분도 고려해 법적인 절차대로 석방했다고 반박했다. 전남경찰청은 석방과정과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승지기자

/여수=김전선기자

판돈 2천500만원 남녀 혼성 도박단 검거

빈 사무실을 빌려 단체로 도박을 하던 주부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도박 혐의로 40~50대 여성 18명과 남성 5명 등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박장을 개설한 A(49)씨 등 일당 3명도 도박장 개장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서

구의 한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판돈 2천500만원 상당의 이른바 ‘도리깃도맹’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도박장을 개장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철현기자

금품 의혹 확산 산림조합장 구속

화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역산림조합장이 구속됐다.

2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역산림조합장 A(63)씨가 뇌물공여, 산림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용도가 정해진 조합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원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지기자

“화단 덮개로 쓸만하네”

○...화단 덮개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 앞에 놓여 있던 에어간판 덮개를 물레몰래 훔쳐간 70대 노인이 경찰서행.

○...2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모(79)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께 남구 백운동의 한 골프샵 상가 앞에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에어간판 덮개를 절도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상가 앞을 지나 가던 정씨가 에어간판 덮개를 본 후 화단 덮개로 사용하고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면서 “폐지나 고물을 주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있는 물품을 몰래 가져가서야 되겠냐”고 혀를 끌끌.

/문철현기자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현재 모집 과정

매일훈련수당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자동차 정비

【교육내용】

- 자동차전기전자장치유지보수
- 하이브리드전기장치정비
- LPG/LPI전자제어장치 정비

【취득자격증】 (6/24 개강)

- 자동차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지게차운전기능사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8/19 개강)

*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취업성공패키지기관 전문상담사
-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관
- 전국 281개 시, 군, 구 소재 공공 직업상담기관
- 2,100개의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
- 24개의 국외 유료 직업소개소 등

냉동공조

【교육내용】

-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기계
- 자동제어설비, 냉동설치시공
- 가스용접, 보일러취급, 보일러시공

【취득 자격증】

- 냉동공조기계기능사
- 가스기능사
- 에너지기능사

(8/19 개강)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